

고진영, LPGA 다승·상금왕·올해의 선수 '싹쓸이'



▲ 고진영, 사진=타운뉴스DB

한국 여자골프의 간판 고진영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다승왕, 상금왕, 올해의 선수를 휩쓸며 새 역사를 썼다.

고진영은 지난 21일 플로리다주 네이 플스의 티비론 골프클럽(파72·6,366 야드)에서 열린 2021 LPGA 투어 시즌 최종전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총 상금 500만 달러) 마지막 날 경기에서 버디만 9개를 기록, 9언더파 63타를 치며 최종합계 23언더파 265타로 우승했다. 이로써 시즌 5승을 거둔 고진영은 코다(4승)을 따돌리고 다승단독 1위에 올랐다. 5승은 한 시즌 본인 최다승이자 한국 선수로는 박인비(6승·2013년)에 이은 2번째 기록이다.

여기에 역대 여자 골프대회 사상 최다 우승 상금인 150만 달러를 거머져 시즌 상금 350만 2,161달러로 상금왕 3연패를 이뤘다. 상금왕 3연패는 2006~2008년까지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이후 LPGA 투어에서 13년 만이다. 한국 선수로는 고진영이 최초다. 여기에 LPGA 투어에서 시즌 상금 300만 달러를 넘긴 사례는 역시 2007년 오초아의 436만 달러 이후 고진영이 14년 만이다.

또 올해의 선수 부문도 포인트 211점으로 1위가 됐다. 고진영이 올해의 선수가 된 것은 2019년 이후 2년 만에 두 번째다. 올해의 선수에 두 차례 선정된

것 역시 한국 선수로는 고진영이 처음이다.

지난해 4개 대회만 참가하고도 2020 시즌 상금왕을 차지한 고진영은 세계 랭킹 1위로 2021시즌을 출발했다. 하지만 초반 슬럼프에 빠지며 쉽지 않은 행보를 걸었다. 고진영은 VOA클래식에서 7개월 만에 시즌 첫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사이 메이저대회 우승으로 승수를 쌓은 라이벌 코다에 세계랭킹 1위를 빼앗겼고, 생애 첫 올림픽도 공동 9위에 머물며 코다의 금메달을 바라봐야 했다. 고진영이 본격적으로 치고 나선 건 9월 포틀랜드 클래식 우승부터다. 이후 10월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 시즌 3승을 올렸다.

고진영은 10월 부산에서 개최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연장 끝에 시즌 4승을 달성하며 4개월 만에 세계랭킹 1위를 탈환했다. 이후 코다에게 다시 세계 1위 자리를 내줬던 고진영은 시즌 최종전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화려하게 시즌을 마무리했다.

한편 고진영은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 탈환에는 실패했다.

지난 22일 발표된 고진영의 세계랭킹 포인트는 994점으로, 10.07점을 기록한 코다를 0.13점 근소한 차로 추격했다. 직전주 차이는 0.95점이었다.

'약물 전력' 본즈, 명예의 전당 마지막 도전



▲ 명예의 전당 입성 마지막 10번째 도전하는 본즈(왼쪽)과 클레멘스, 사진=slate.com

약물 전력이 있는 홈런왕 배리 본즈가 명예의 전당 입성 마지막 도전에 나선다.

지난 23일 '엑스포츠뉴스'에 따르면 명예의 전당은 전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차기 입성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명예의 전당 후보 자격을 유지한 17명과 2016년 은퇴 이후 자격 요건을 충족한 13명까지 총 30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와 비교해 5명이 늘어났다.

2022년 명예의 전당 입회를 놓고 본즈, 로저 클레멘스, 커트 실링, 개리 쉐필드, 매니 라미레즈, 새미 소사 등 재도전자들과 알렉스 로드리게스, 데이비드 오타스, 팀 린스컴, 칼 크로포드, 프린스 필더, 마크 테세이라 등 새로운 얼굴들이 경쟁을 펼친다.

본즈와 클레멘스는 마지막 10번째 도전에 임한다. 명예의 전당에 입회하기 위해서는 BBWAA 투표에서 7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한다. 지난해 본즈는 61.8%, 클레멘스는 61.6%를 기록했다. 본즈와 클레멘스 모두 약물 논란이 있지만, 압도적인 커리어로 10번째 기회를 거머쥐었다. 하지만 약물 전력은 명예의 전당 입성에 큰 걸림돌이다.

새로운 후보들 중에서도 로드리게

스와 오타스가 약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로드리게스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소위 '스테로이드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다. 유격수와 3루수로 뛰며 MLB 통산 홈런 696개를 치고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MVP)로 3회 뽑히는 등 한때 최고의 타자로 꼽혔다. 하지만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이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한 사실까지 드러나 비판받았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전설로 자리 잡은 오타스도 약물 검사 양성 반응리스트에 있다. 그는 루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가 "결백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한번 불은 불명예 고리표를 쉽게 펼쳐내지 못한다.

두 사람 모두 업적만 놓고 보면, 명예의 전당 입회를 노려볼 수 있으나 약물 전력으로 인해 본즈, 클레멘스와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입성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뉴욕타임스는 "두 명에 대해선 이미 너무 많이 언급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다른 새 후보들에게 축하드린다"는 말을 붙였다.

한편 지난해 71.1% 득표율로 가까스로 명예에 전당에 입회하지 못한 실링도 마지막 자격을 얻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해 드립니다.
침, 부황,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 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치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온
한의사,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